

외상 상담자의 대리외상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남 희 경†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대리외상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외상 상담자들의 개별면담 내용과 선행이론 분석을 통해 대리외상의 구성 개념과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고, 전문가 내용 타당도 평정을 거쳐 예비 척도를 개발하였다. 외상 생존자들을 조력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상 상담자 316명을 대상으로 예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 구조의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석 결과, 개발된 척도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 외상과 애착 신념 척도, 상담자 소진 질문지, 역전이 행동 척도와 적절한 상관을 나타내어 대리외상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과 상관분석을 한 결과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척도의 예측 타당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대리외상 척도와 경력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초심집단과 비교하여 숙련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긍정적 영향'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리외상, 외상 상담자, 대리외상 척도

* 본 논문은 남희경(2016)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남희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서울 은평구 진관4로 37, 801-411

Tel : 02-579-9763, E-mail : healingmove@hanmail.net

공감(empathy)은 내담자와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고, 공감 능력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담자의 외상에 대한 공감은 상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위협을 야기하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인간의 잔인성, 폭력, 착취 및 잔악한 행위에 관한 이야기에 노출되는 경험은 상담자 자신의 신뢰감과 취약감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되고, 이는 상담자들의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불신과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Herman, 2007). 내담자의 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감적 관여를 한 결과로써 상담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대리외상이라고 한다(McCann & Pearlman, 1990). 외상 생존자들을 조력하는 실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유사한 경험을 겪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단절 및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계위반, 그리고 신뢰와 안전의 부재나 취약감에 노출되어 신념체계의 변화를 겪는 등 총체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Cohen & Collens, 2013; 남희경, 2016 재인용). 그러나 대리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상담자는 이러한 심리적 영향을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의 문제, 혹은 전문성의 부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담자의 정신건강, 업무의 효용성, 소진, 그리고 이직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Canfield, 2005; Gottfried, 2010).

최근 국내 실태조사 연구에서도 외상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심각한 수준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고영빈, 2008; 박윤미, 윤혜미, 2011; 정여주, 2011)나 위험수준의 대리외상(이영선 등, 2012), 대리외상에 따른 신념의 왜곡(김보경, 2012)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외상

상담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리외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함께 조력자들의 정신건강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고, 대리외상의 예방 교육이나 개입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박지영, 2011; 이미혜, 성승연, 2014).

대리외상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경험적 연구에서는 개인적 외상 경험이 있는 상담자, 초심자, 한 번에 많은 사례수에 노출된 상담자가 대리외상에 더욱 취약하고(Adams & Riggs, 2008; Jenkins & Baird, 2002; Pearlman & Mac Ian, 1995), 상담자의 경력, 교육수준,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리외상 수준은 낮아진다고 제안하였다(Baird & Jenkins, 2003; Cunningham, 2003; Pearlman & Mac Ian, 1995). 또한 사회적 지지, 동료 슈퍼비전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의 지원, 영성 등이 보호 요인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Cohen & Collens, 2013; Trippany, White Kress, & Wilcoxon, 2004). 하지만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후속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는 대체로 모호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Baird와 Kracen(2006)은 연구자마다 대리외상을 다양하게 개념화하였고, 대리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리외상 연구의 비밀관적 결과는 근본적으로 개념적 정의와 측정의 문제에서 기인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대리외상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내담자의 외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공감적 관여를 한 결과로 상담자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총체적인 영향’(McCann & Pearlman, 1990)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상담자의 간접 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소진, 역전이 등과 같은 현상들과 구분된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한 번의 간접 외상 노출 혹은 비교적 갑작

스럽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점에서 대리외상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Baird & Jenkins, 2003). 소진은 상담자의 직업적 스트레스가 야기하는 정신적 고갈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Sabin-Farrell & Turpin, 2003) 외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대리외상과는 차이가 있다(McCann & Pearlman, 1990). 또한 역전이는 상담관계에서 재현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제한되는 반면, 대리외상은 상담과정 뿐 아니라 상담자의 신념체계를 포함하여 상담자 개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abin-Farrell & Turbin, 2003).

대리외상의 개념이 소개되었던 초창기 대리외상에 대한 논의는 상담자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같은 인지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후속 연구들을 통해 상담자들은 대리외상으로 인해 인지적 왜곡 뿐 아니라 신체, 정서, 행동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리외상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권해수, 김소라, 2006; 이미혜, 성승연, 2014; Gottfried, 2010; Sabin-Farrell & Turpin, 2003). 많은 외상 연구에서도 인지외상과 정서 간 상관성이 높고, 외상사건은 개인의 사고와 신념에 변화를 야기하며 이러한 인지적 변화는 외상사건에 대한 정서적 변화를 일으킨다(Foa, Dancu, Hembree, & Jaycox, 1999; 안현의, 2005 재인용)는 근거를 제시해왔다. 권해수와 김소라(2006)는 기존 대리외상 개념은 인지적인 측면의 부정적 영향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포괄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대리외상 개관 연구(이미혜, 성승연, 2014)에서도 상담자의 간

접적인 외상 노출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지 뿐 아니라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적인 경험까지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리외상의 구성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왔다. Van de Water(1996)는 대리외상을 (1)안전에 대한 걱정, (2)감각적 이미지의 파괴, (3)기분 변화, (4)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5)타인에 대한 불신과 세계관의 변화라는 구성개념으로 제안하였다. Sabin-Farrell과 Turpin(2003)은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리외상으로 인한 영향은 (1)증상적 반응, (2)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 (3)인지적 변화 (4)대인관계 및 직업적 기능 등 다차원적 영역을 포함한다고 제안하였다. Gottfried(2010)도 상담자의 간접 외상을 하나의 측면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인지적 변화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같은 증상을 통합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Cohen과 Collens(2013)는 메타종합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리외상은 상담자의 신체적인 반응, 정서적 반응, 인지적 변화, 내담자와 신뢰와 경계 위반, 사회적 고립, 긍정적 변화를 야기한다고 정리하였다. 국내 외상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대리외상 현상에 관한 질적 연구들(강방글 등, 2013; 권해수, 김소라, 2006; 손지연, 2012)의 결과에서도 신체적, 정서적 반응, 인지적 변화, 상담관계 및 대인관계의 변화, 긍정적 경험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이미혜, 성승연(2014)은 개관 연구를 통해 대리외상의 구성개념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긍정적 요인 등을 포함해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개념도 연구 결과(남희경, 장성숙, 2016)에서도 대리외상의 구성 개념을, ‘생리적 영향’, ‘정서적 영향’,

‘인지적 영향’, ‘사회적 영향’, ‘상담관계 영향’, ‘긍정적 영향’이라는 다차원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대리외상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살펴보면 개념적 정의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Pearlman과 Mac Ian (1995)이 개발한 외상과 애착 신념 척도(TABS)는 대리외상에 따른 인지적 왜곡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인데, 인지적 변화만으로 대리외상 현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다수의 대리외상 연구들에서는 증상적 측면을 반영하려고 Weiss와 Marmar(1997)가 개발한 사건 충격 척도(IES-R)를 TABS와 함께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직접 외상에 대한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척도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간접 외상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타당성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Bride, et al., 2004; Elwood, Mott, Lohr, & Galvski, 2011). 그리고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STSS)는 외상 피해자를 만난 이후 상담자에게 나타나는 침습, 회피, 각성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써 일시적인 간접 외상 노출에도 나타날 수 있는 생리 및 정서적 측면만을 설명하였다. Sabin-Farrell과 Turpin(2003)에 따르면, 상담수 경험적 연구에서 대리외상의 다차원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도구를 병행해서 사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리외상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하여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뿐 아니라 대리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도 혼란을 가져왔다.

종합해보면, 대리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증상적 측면과 인지적 왜곡에서 개인적, 전문적 일상의 변화까지 확대하여야 할 뿐 아

니라 부정적 영향에서 긍정적 변화까지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볼 것을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최근 대리외상에 관한 개념도 연구(남희경, 장성숙, 2016)에서도 대리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생리, 정서, 인지, 사회 및 상담관계, 그리고 긍정적 영향을 포함하는 다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적 대리외상 개념을 반영하는 척도가 부재하여 대부분 연구들은 대리외상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대리외상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을 확보하고, 이를 반영한 척도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리외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는 것이다. 개발된 척도는 외상 피해 기관에서 조력하는 실무자들의 대리외상의 수준과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문항개발 면담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대리외상 척도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외상상담자 16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외상상담자는 외상 생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였고, 동료들로부터 추천받는 비확률 표집방법인 눈덩이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평균 경력은 최소 1년 2개월에서 최대 22년, 평균 연령은

최소 25세, 최대 64세를 포함하고, 참여자들이 소속된 기관은 성폭력피해지원, 성매매피해지원, 가정폭력피해지원, 이주여성, 십대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상담소 및 쉼터,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 등을 포함하였다.

본 조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외상상담자로서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이다.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에 위치한 외상 생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자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316)

| 항목 |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
| 성별 | 남 | 14 | 4.4 |
| | 여 | 302 | 95.6 |
| 연령 | 20대 | 39 | 12.3 |
| | 30대 | 85 | 26.9 |
| | 40대 | 132 | 41.8 |
| | 50대 | 52 | 16.5 |
| | 60대 | 8 | 2.5 |
| | 학력 | 전문학사 | 33 |
| 학사 | | 133 | 42.1 |
| 석사과정 | | 45 | 14.2 |
| 석사 | | 69 | 21.8 |
| 박사과정 | | 18 | 5.7 |
| 박사 | | 7 | 2.2 |
| 경력 | 3년 이내 | 120 | 38.0 |
| | 3~5년 | 95 | 30.1 |
| | 5~10년 | 47 | 14.9 |
| | 10년 이상 | 54 | 17.1 |
| 기관특성 (중복응답) | 성폭력 피해지원 | 162 | 26.8 |
| | 가정폭력 피해지원 | 121 | 20.0 |
| | 성매매 피해지원 | 162 | 26.8 |
| | 이주여성 지원 | 54 | 8.9 |
| | 아동학대 피해지원 | 60 | 9.9 |
| | 재난 피해지원 | 13 | 2.1 |
| | 병영 생활 지원 | 12 | 2.0 |
| | 기타 | 21 | 3.5 |

료 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총 47개 기관으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를 얻은 47개 기관의 실무자 총 340명에게 설문지를 반송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설문지 우편 배송 및 반송은 2015년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발송된 설문지 340부 중 318부가 회수되었고 수거된 설문지 중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31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은 여성이 월등히 우세하고,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학력은 전문학사에서 박사학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이 소속된 기관은 성폭력피해지원, 가정폭력피해지원, 성매매피해지원, 이주여성지원, 아동학대 피해지원, 재난피해지원, 병영생활지원 등을 포함하였다.

측정 도구

대리외상 척도(Vicarious Trauma Scale: VTS)

예비 문항 개발 과정을 통해 선정된 44개 문항의 대리외상 척도(VT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생리적 영향’, ‘정서적 영향’, ‘인지적 영향’, ‘사회적 영향’, ‘상담관계 영향’, ‘긍정적 영향’이라는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와 각 하위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리외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영향’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6, 12, 20, 24, 32, 36, 43)은 역채점 되었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 STSS)

Bride 등(2004)이 개발한 이 척도는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를 만난 이후에 상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한다. 침습, 회피, 각성의 3요인,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지영(2011)이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K-STSS)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타당화 당시 신뢰도 계수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계수는 .923이었다.

외상과 애착 신념 척도(Trauma and Attachment Belief Scale: TABS)

Pearlman(2003)이 대리외상으로 인한 상담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서 하위 요인은 안전, 신뢰, 자존감, 친밀감, 통제라는 5가지 심리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각 영역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점수 및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대리외상으로 인한 핵심 신념의 왜곡이 심하다고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권혜수(2011)가 국내에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번안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계수는 .97이었다.

상담자 소진 질문지(Counselor Burnout Inventory: CBI)

상담자의 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 등(2007)이 개발한 척도로서 하위요인들은 정서적 고갈, 부정적인 업무환경, 내담자 가치절하, 무능함, 사생활 악화를 포함한다. 총 20문

항,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상담자 소진 척도(CBI)는 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 업무 소진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Yu(2007)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K-CBI를 사용하였고, 타당화 당시 신뢰도 계수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계수는 .92이었다.

역전이 행동 척도(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ICB)

Fridman과 Gelso(2000)가 개발한 척도로서 무관심/배척, 과잉지지, 통제/혼계의 3가지 요인,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지은과 조성호(2006)가 번역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타당화 당시 내적합치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간략하게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척도로서,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 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라는 3개의 요인,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2과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계수는 .89이었다.

삶의 만족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 Larsen과 Griffin(1985)이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민지(2012)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윤민지(201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연구 절차

조작적 정의

척도 개발의 첫 번째 절차로서 대리외상의 구성 개념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상상담자들이 지각하는 대리외상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도출하였던 남희경, 장성숙(2016)의 개념도 연구 결과와 선행 이론들을 토대로 대리외상 구성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탐색하였다. 개념도 결과(남희경, 장성숙, 2016)에서는 총 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범주는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기 때문에 척도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심리학 박사학위를 소지자 2인 및 외상상담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인간의 심리를 인지, 정서, 행동 등 다차원적 측면으로 이해하듯이 대리외상이 상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또한 다차원적 영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각 차원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동화’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이 생리적 영향, 정서적 영향, 사회적 영향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대리외상의 구성 요인은 6가지 차원으로 고유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로 나타난 6요인이 이론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 이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 최종 요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표 2와 같이

표 2. 최종 요인 구조에 대한 이론적 근거

| 구성 개념 | 조작적 정의 | 이론적 근거 |
|---------|-----------------------------------------|-------------------------------------------------------------------------------------------------------------------------------------------------|
| 생리적 영향 | 피로감, 과각성, 단맛추구, 수면, 성욕의 변화와 같은 신체생리적 반응 | Gottfried(2010), Van de Water(1996), 강방글 등(2013), Sabin-Farrall & Turpin(2003), Cohen & Collens(2013), 권해수, 김소라(2006) |
| 정서적 영향 | 우울, 무력감, 자책감, 거부감, 분노와 같은 정서적 반응 | Gottfried(2010), Van de Water(1996), 강방글 등(2013), Sabin-Farrall & Turpin(2003), Cohen & Collens(2013), 권해수, 김소라(2006) |
| 인지적 영향 | 안전을 의심,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 무의미와 같은 인지적 변화 | Gottfried(2010), Van de Water(1996), 강방글 등(2013), Sabin-Farrall & Turpin(2003), Cohen & Collens(2013), 권해수, 김소라(2006), Pearlman & Mac Ian(1995) |
| 사회적 영향 | 갈등, 제한, 고립과 같은 대인관계 양상의 변화 | Van de Water(1996), 강방글 등(2013), Sabin-Farrall & Turpin(2003), Cohen & Collens(2013), 권해수, 김소라(2006) |
| 상담관계 영향 | 과도한 책임이나 책임감, 상담관계에서 경계의 위반 | Sabin-Farrall & Turpin(2003), Cohen & Collens(2013), 권해수, 김소라(2006) |
| 긍정적 영향 | 보람, 이해, 신뢰, 성장과 같은 긍정적 경험 | Cohen & Collens(2013), 권해수, 김소라(2006), Hernandez, Engstrom, Gangsei(2010), Acevedo, Hernandez(2014) |

정리될 수 있다.

예비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16명의 외상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리외상 척도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별 면담을 분석한 결과 총 104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는 척도 개발을 위한 적절성 평정과정에서 척도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많은 문항수라고 판단되어 문항 수를 축소하고, 적절성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예비 평정 과정을 실시하였다. 예비 평정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3인이며, 연구자 외 심리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상담심리전문가 1인 및 외상상담 전문가 1인이다. 연구 평정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예비 평정을 실시하였다. (1) 총 104개 문항 중에서 중복되는 문장을 통합하였

고, (2) 대리외상의 구성 개념과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 문항들을 삭제하였으며, (3) 대리외상의 각 하위요인과 관련성이 모호하다고 판단한 문항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예비 평정을 실시한 결과, 대리외상에 관한 개념도 연구(남희경, 장성숙, 2016)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대리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생리적 영향’, ‘정서적 영향’, ‘인지적 영향’, ‘사회적 영향’, ‘상담관계 영향’, ‘긍정적 영향’이라는 6가지 차원이 고유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생리적 영향 8개, 정서적 영향 9개, 인지적 영향 6개, 사회적 영향 6개, 상담관계의 영향 8개, 긍정적 영향 7개 문항을 포함한 총 69개의 1차 예비 문항이 구성되었다.

내용 타당도 검증

다음 단계에서는 선행 과정을 통해 얻어진 대리외상의 구성 개념과 문항들이 대리외상 척도로 활용되는 데 적절한지 확인하는 내용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내용 타당도 평정을 위해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평정을 거쳤고, 심리학 관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 평정을 거쳤다. 1차적으로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적절성 평정을 실시하였다. 69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문항을 외상상담 현장에 있는 전문가 10명에게 각 문항에 대한 안면 타당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평정 항목은 (1) 대리외상 구성개념과의 적합도, (2) 하위요인과의 적합도, (3) 문항 내용의 이해도라는 세 가지 항목이었다. 평정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고, 문항 개선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은 평정 결과물 토대로 평정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을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맥상 이해가 어려운 경우는 표현법을 수정하는 작업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4개의 중복 혹은 부적절 문항을 제거하고, 선정된 문항의 내용도 일부 수정하여 총 45개의 2차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2차 평정은 상담심리학 전공 박사 및 척도 개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 평정에서는 집중적 인터뷰를 통해 2차 예비 문항에 대한 문항 수정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받았다. 내용 평정의 기준은 (1) 대리외상 구성 개념과의 적합도, (2) 하위 요인과의 적합도, (3) 문항 내용의 이해도를 포함한 세 가지 항목이었다. 이에 대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고, 그 결과 다시 한 번 모호한 문항 내용은 수정을 거치고, 보완하여 최종 44문항을 확정하였다.

분석 방법

Thompson(2010)에 따르면, 척도 개발에서 측정 개념에 대한 이론적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6요인의 대리외상 예비 척도에 대한 요인 구조의 적합성 및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측정모형의 요인계수와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단계에서 모수계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최종 선정된 6요인 28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와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분석하여 모든 하위차원이 적절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이차외상스트레스 척도, 외상과 애착 신념 척도, 상담자 소진 질문지, 역전이 행동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준거 관련타당도 검증을 위해 단축형 행복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리외상 척도가 초심과 숙련 외상상담자의 대리외상 수준의 차이를 설명해주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초심(3년 미만)과 숙련(10년 이상),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경력 변인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한 추가 문항 삭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서 수정지수 및 요인 부하량을 근거로 문항 삭제를 할 수 있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다(Hurley, Scandura, Schriesheim, Brannick, Seers, Vandenberg, & Williams, 1997). 이에 따라 6요인, 44문항으로 구성된 대리외상 예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척도 문항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별 기준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 각 문항들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들과 (2)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확인하여 문항 간 상관이 지나치게 높은 문항들을 토대로 (3) 각 문항에 대한 내용 검토를 고려해서 삭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Comrey와 Lee(1992)에 따르면,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이면 괜찮은 수치라고 제안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40을 절단점(cut-off) 기준으로 채택하였고,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문항들과 수정 지수(MI)를 확인한 결과 문항 간 상관이 높은 문항들에 대해 측정변수로서의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 검토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삭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요

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과 수정 지수가 지나치게 높은 문항들을 추가적으로 삭제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대리외상 척도의 문항 수는 최종 28개로 축약되었다. 또한 대리외상 28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가 안정된 기준을 충족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가정한 6요인, 28문항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에서 제시 바와 같이 6요인 측정 모형에 대한 RMSEA값은 .054(90% 신뢰구간 .048 ~.060), SRMR값은 .057이며, TLI값은 .90, CFI값은 .91로 나타났다. Hu와 Bentler(1995)의 기준에 따르면, CFI와 TLI값은 .90이상이고 RMSEA값은 .05에서 .08정도이고, SRMR값은 .08보다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증된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 계수의 추정값 및 유의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측정변수의 모든 표준화 요인 부하량은 모두 .40이상이며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28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분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하위요인별 계수도 .63에서 .80으로 모든 하위차원에서 적절한

표 3.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 χ^2 | df | TLI | CFI | RMSEA (90% CI) | SRMR |
|----------|-----|-----|-----|-------------------|------|
| 641.277 | 334 | .90 | .91 | .054(.048~.060) | .057 |

** $p < .01$

표 4. 측정 모형의 요인계수 및 신뢰도 계수

| 요인 (신뢰도 계수) | 측정변인 (문항) |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 표준 오차 | t |
|-------------------------------------------|---------------------------------------------------------|---------------|---------------|----------|----------|
| (Cronbach's a = .79) | V44 (내담자를 지원하고 나면 어깨가 딱딱해지거나 소화가 안 되는 신체 증상을 느낀다) | 1.00 | .62 | | |
| | 생리적 영향 V42 (내담자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을 만큼 진이 빠진다) | 1.03 | .64 | .08 | 12.24*** |
| | V22 (내담자를 지원하고 나면 단 음식(초콜릿, 사탕, 과자 등)이 당긴다) | .86 | .51 | .11 | 7.92*** |
| | V18 (내담자를 지원하면서 내 배우자나 파트너를 성적으로 멀리하게 된다) | .85 | .58 | .10 | 8.91*** |
| | V8 (내담자의 외상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 .97 | .66 | .10 | 9.84*** |
| V1 (내담자의 외상 이야기를 듣고 잠이 오지 않거나 악몽을 꾸기도 한다) | 1.00 | .64 | .10 | 9.61*** | |
| (Cronbach's a = .72) | 정서적 영향 V41 (내담자 외상 이야기가 너무 끔찍하고 무섭게 느껴진다) | 1.00 | .53 | | |
| | V40 (내담자가 같은 문제행동을 반복할 때 나도 무력감에 빠진다) | .97 | .54 | .13 | 7.56*** |
| | V34 (내담자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우울해진다) | 1.55 | .79 | .16 | 9.52*** |
| (Cronbach's a = .79) | V2 (내담자를 충분히 돕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낀다) | 1.15 | .63 | .14 | 8.34*** |
| | V26 (내담자를 지원하면서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 .80 | .59 | .09 | 9.32*** |
| | 인지적 영향 V15 (가해 이야기를 자주 접하면서 내 가족의 안전을 의심하게 된다) | .95 | .68 | .09 | 10.61*** |
| | V9 (가해 이야기를 계속 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의를 의심하게 된다) | 1.03 | .72 | .09 | 11.17*** |
| V7 (내담자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 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87 | .64 | .09 | 10.09*** | |
| (Cronbach's a = .80) | V3 (내담자의 외상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 1.00 | .68 | | |
| | 사회적 영향 V4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면서 대인관계가 점점 더 제한된다) | 1.00 | .67 | | |
| | V10 (나의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다) | .74 | .61 | .08 | 9.50*** |
| | V16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낸다) | .91 | .71 | .08 | 10.84*** |
| | V30 (내담자를 지원하는 일을 중시하다보니 가족에게 소홀해진다) | .88 | .67 | .09 | 10.35*** |
| V39 (가라앉은 내 기분이 동료들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된다) | .93 | .70 | .09 | 10.79*** | |
| (Cronbach's a = .74) | 상담관계 영향 V5 (퇴근 후에도 내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고 걱정된다) | 1.00 | .75 | | |
| | V17 (내담자의 힘든 얘기를 듣다보면 상담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 .92 | .61 | .09 | 10.43*** |
| | V23 (내담자에게 과도하게 애정을 쏟거나 도움을 주려고 한다) | .57 | .54 | .06 | 9.22*** |
| V31 (내담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이 커진다) | .82 | .70 | .07 | 12.03*** | |
| (Cronbach's a = .63) | 긍정적 영향 V20 (외상을 이겨내고 성장해가는 내담자를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 1.00 | .46 | | |
| | V24 (내담자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 | 1.23 | .59 | .22 | 5.59*** |
| | V32 (힘든 내담자를 지원하면서 상담가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 1.46 | .65 | .26 | 5.67*** |
| | V36 (외상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 1.14 | .48 | .22 | 5.12*** |

대리외상 전체 (28문항) Cronbach's $\alpha = .9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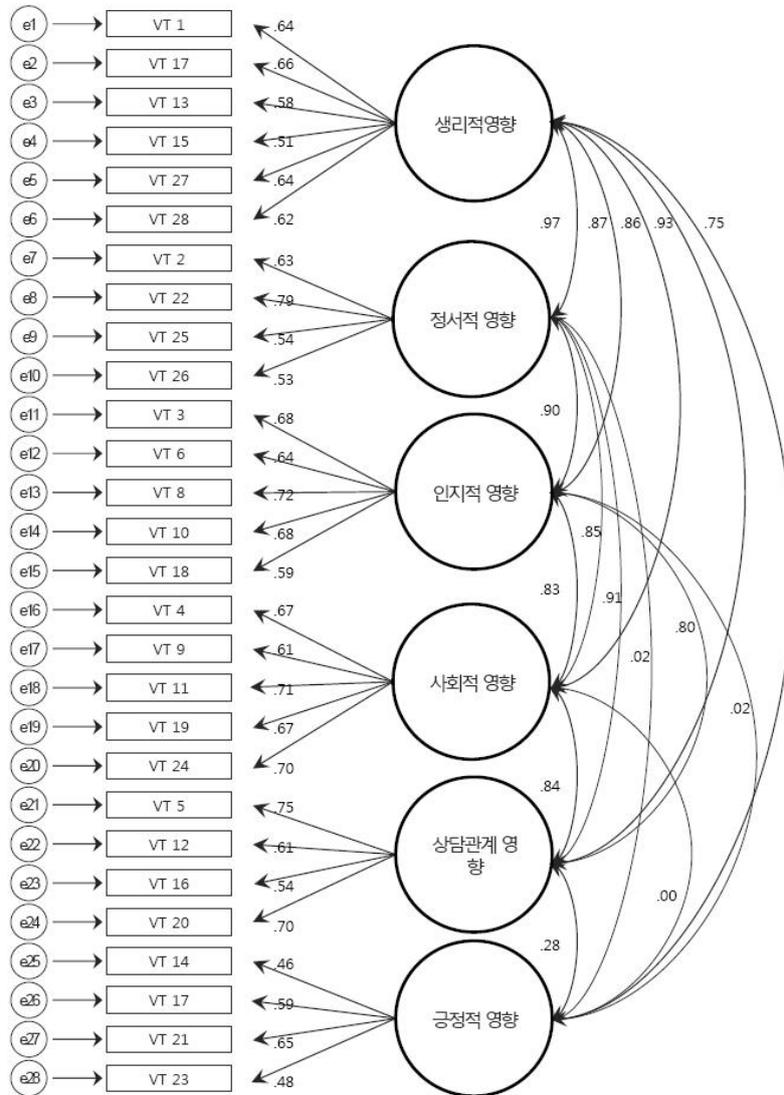


그림 1. 대리외상 척도의 6요인 모형 (표준화 계수)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6요인 모형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를 살펴 보면,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문항들과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들은 .51에서 .79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대리외상 척도의 하위요인과 유관 변인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대리외상 척도의 총점($r=.51 \sim .82$)은 모든 관련 변인들과 적절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각 척도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긍정적 영향($r=.006$)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r=.640 \sim .741, p<.01$)과 적절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소진은 모든 하위요인($r=.465 \sim .719, p<.01$)과 적절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전이 행동은 긍정적 영향($r=.119, p<.05$)과 다른 모든 하위요인($r=.361 \sim .462, p<.01$)과 적절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상과 애착 신념도 모든 하위요인($r=.312 \sim .561, p<.01$)과 적절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표 5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하위요인별로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리외상 척도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소진, 역전이 행동, 외상 신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척도의 적절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측 타당도

대리외상 척도의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을 준거 지표로 선정하고 이들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리외상 척도의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은 삶의 만족($r=.23 \sim .46, p<.01$)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대리외상 척도의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은 주관적 안녕감($r=.21 \sim .61, p<.01$)과도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척도의 적절한 예측 타당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숙련 및 초심집단 간 대리외상 평균 차이 검증

경력 변인(초심과 숙련)에 대한 대리외상의

표 5. 대리외상 하위요인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 | 생리적 영향 | 정서적 영향 | 인지적 영향 | 사회적 영향 | 상담관계 영향 | 긍정적 영향 | 대리외상 총점 |
|------------|-----------|-----------|-----------|-----------|------------|-----------|------------|
|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 .71** | .71** | .69** | .74** | .64** | .01 | .82** |
| 상담자 소진 | .55** | .55** | .56** | .72** | .47** | .23** | .71** |
| 역전이 행동 | .39** | .46** | .41** | .46** | .36** | .12* | .51** |
| 외상 신념과 애착 | .34** | .42** | .53** | .56** | .31** | .20** | .55** |

* $p<.05$, ** $p<.01$

표 6. 대리외상 하위요인과 예측 변인과의 상관관계

| | 생리적 영향 | 정서적 영향 | 인지적 영향 | 사회적 영향 | 상담관계 영향 | 긍정적 영향 | 대리외상 총점 |
|---------|-----------|-----------|-----------|-----------|------------|-----------|------------|
| 삶의 만족 | -.23** | -.26** | -.34** | -.46** | -.27** | -.25** | -.41** |
| 주관적 안녕감 | -.39** | -.46** | -.50** | -.61** | -.39** | -.21** | -.59** |

** $p<.01$

표 7. 숙련 및 초심 집단 간 대리외상의 평균 차이 t-검증

| | 경력변인 | 평균 | 표준편차 | t | 효과크기 Cohen's d |
|---------|------|------|------|--------|-------------------|
| 생리적 영향 | 초심 | 2.81 | .69 | 1.39 | .19 |
| | 숙련 | 2.67 | .72 | | |
| 정서적 영향 | 초심 | 3.04 | .67 | 1.92 | .26 |
| | 숙련 | 2.86 | .69 | | |
| 인지적 영향 | 초심 | 2.79 | .71 | 1.34 | .19 |
| | 숙련 | 2.65 | .70 | | |
| 사회적 영향 | 초심 | 2.79 | .77 | 2.14* | .29 |
| | 숙련 | 2.56 | .79 | | |
| 상담관계 영향 | 초심 | 3.21 | .67 | .65 | .08 |
| | 숙련 | 3.15 | .77 | | |
| 긍정적 영향 | 초심 | 2.30 | .51 | 4.52** | .64 |
| | 숙련 | 1.98 | .48 | | |
| 대리외상 총점 | 초심 | 2.82 | .49 | 2.52* | .41 |
| | 숙련 | 2.64 | .52 | | |

* $p < .05$, ** $p < .01$, (초심집단 $n=120$, 숙련집단 $n=54$)

차이를 살펴보면, 대리외상 척도의 총점은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52$, $p < .05$)를 나타내었다. 하위요인에서도 두 집단은 사회적 영향($t=2.14$, $p < .05$)과 긍정적 영향($t=4.52$,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심집단은 대리외상 총점에서 숙련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숙련집단과 초심집단의 차이를 Cohen's d 값을 통해 살펴보았다. Cohen(1992)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Cohen's d 값이 .20은 작은 효과크기이고, .50은 중간 효과크기이며, .80은 큰 효과크기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긍정적 영향에서 .64라는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어

하위요인 중 가장 큰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외상상담자를 대상으로 대리외상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척도 개발 단계에서는 16명 외상상담자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와 선행 이론 분석을 기반으로 대리외상의 구성 개념과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1차 외상상담 전문가 집단, 2차 심리학자 집단을 대상으로 예비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최종 6요인 구조를

가정한 예비 척도가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가정한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6요인 모형의 요인 구조와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개발된 척도가 대리외상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리외상 척도와 외상상담자의 경력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초심집단은 대리외상 총점에서 숙련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그 중에서도 ‘긍정적 영향’에서는 숙련집단이 초심집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척도 개발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은 다른 하위 요인과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긴 하였지만 본 척도는 단일차원의 총점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과 달리 이질적인 요인들을 통합하는 다차원적 척도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리외상을 기존의 인지적 왜곡이나 증상적 측면으로만 인식하였던 관점을 확장하여 통합적 개념을 확보하고, 이를 반영한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대리외상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도구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경험적 연구에서는 대리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들이 혼란스럽게 사용되어왔다(Sabin-Farrell & Turpin, 2003). 그로 인해 대리외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기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 비일관적인 결과를 초래해왔다(Baird & Kracen, 2006). 지금까지 대리외상을 측정하였던 대표적인 도구로써 외상과 애착 신념척도(TABS)는 상담자의 인지적 왜곡이라는 측면만을 반영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STSS)나 사건충격척도(IES-R)를 TABS와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척도들은 PTSD와 유사한 증상적 측면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척도들은 대리외상의 단편적 측면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 선행연구들에서도 대리외상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측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왔으며(이미혜, 성승연, 2014; Gottfried, 2010; Jenkins & Baird, 2002; Sabin-Farrell & Turpin, 2003), 이러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상상담자들의 면담 결과와 선행 이론을 토대로 대리외상의 잠재적 구성 개념을 확인하였고,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대리외상은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상담관계, 그리고 긍정적 영향을 포함한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외상상담자가 내담자의 외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그로 인해 고통이나 피해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이 축적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심자들에게 비해 숙련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경험한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이는 긍정적 영향이 경력 변인과 상당히 관련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리외상의 경험이 부정적이기만 하다면 경력이 오래될수록 대리외상 수준이 더욱 심각해져야겠지만 연구결과는 상반된다. 외상상담 초기에 대리외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경력이 쌓이면서 대리외상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고하였다(권해수, 김소라, 2011; Adams & Riggs, 2008; Cunningham, 2003; Gottfried, 2010). 이는

외상을 경험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들(이양자, 정남운, 2008; Tedeschi & Calhoun, 2004)에서 지적한 시간과 성장의 관계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권해수, 김소라, 2006; 이미혜, 2015; Baird & Jenkins, 2003; Pearlman & Mac Ian, 1995)은 오랜 기간 살아남은 외상상담자들은 대리 탄력성이나 대리외상 후 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경험하게 되어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고, 스스로 증상을 다룰 수 있는 대처 전략을 증가시켜 대리외상 증상이 완화되거나 낮아진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내담자의 회복을 목격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인간의 회복력을 신뢰하게 되며, 상담자로서 성장해가는 대리외상 후 성장(VTG)과 유사한 경험이며, 이러한 성장은 경력과 함께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대리외상 연구들(권해수, 김소라, 2006; 이미혜, 성승연, 2014; Cohen & Collens, 2013)에서도 상담자들의 부정적인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결과는 외상 생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상담자의 심리적 영향을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에만 편향되지 않고,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여 대리외상의 경험을 좀 더 총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초심 외상상담자의 교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자가 겪는 간접외상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상담자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자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나가는가에 따라서 상담자로서, 인간으로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동

훈, 신지영, 김유진, 2015; 허재경, 신영주, 20114). 초심 상담자들에게 외상상담의 중요한 의미인 ‘긍정적 영향’을 자각하도록 교육한다면 외상상담의 의미를 일깨워줌으로써 외상상담의 동기와 유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Hernandez, Gangsei, & Engstrom, 2007). 나아가 이러한 초심자 교육은 대리외상을 직업적 손상 혹은 피해라고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담자로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도록 외상상담의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고, 상담자로서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리외상이 외상상담자의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감을 방해하는 심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 대리외상은 주관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경력 수준에 따라 상담자들이 대리외상을 인식하는 양상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대리외상은 초심자만 겪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랫동안 외상상담을 해온 숙련자도 대리외상의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대처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리외상은 내담자의 외상에 공감적 관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적응적 기제로서, 그 자체가 병리적인 것은 아니다(Pearlman & Saaknitne, 1995). 하지만 대리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로 인한 어려움을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의 문제, 혹은 전문성의 부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다. 또한 이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처나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만성화되어 결국에 상담자의 정신건강, 업무의 효율성,

소진, 그리고 이직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Canfield, 2005; Gottfried, 2010; 남희경, 2016 재 인용). 이는 대리외상에 대한 교육이 상담자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측면 뿐 아니라 상담의 질과 윤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리외상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외상상담 기관의 윤리적인 책임이고,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상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상담자의 참여율이 소수였고, 참여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특성도 재난피해보다 여성과 폭력피해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여 남성 상담자와 기관의 다양한 특성까지 고려하여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내적 합치도를 통해서만 검증하였는데, 대리외상에 대한 반응이 개인의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척도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앞으로 대리외상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 국내 외상상담 현장에서 대리외상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대리외상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방글, 한인영, 이현정, 박정림 (2013). 성폭력 상담사의 대리외상에 대한 주관성 인식 유형 연구. *정신과 사회사업*, 41(3), 118-147.
- 고영빈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해수 (2011).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외상 관련 변인 연구: 상담유형, 외상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415-430.
- 권해수, 김소라 (2006).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95-518.
- 김보경 (2012). 성폭력, 성매매 상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리 외상의 관계에서 외상 신념의 매개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조성호 (2006).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17-136.
- 남희경, 장성숙 (2016). 숙련 및 초심 외상 상담자가 지각하는 대리외상의 영향과 대처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 연구*, 12(3), 1-22.
- 박윤미, 윤혜미 (2011).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한 역할 갈등, 업무 부담과 이차외상 및 자기 효능감의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289-322.
- 박지영 (2011).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33-57.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SMOSW)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손지연 (2012). 미술치료사의 대리외상 경험과 대처에 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3(1), 31-41.
- 윤민지 (2012). 긍정정서와 삶에 대한 만족 관계에서 긍정사고, 의미발견 및 의미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5). 세월호 재난상담에 참여한 여성상담자의 성장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369-400.
- 이미혜, 성승연 (2014). 상담자를 위한 대리외상: 개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109-137.
- 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 이영선, 이소래, 주성아, 고영빈, 김예진, 한인영 (2012). 응급구조원, 지하철 승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 *사회복지연구*, 43(1), 249-273.
- 정여주 (2011).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클라이언트 폭력이 이차적 외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재경, 신영주 (2015). 여성상담자의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발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615-639.
- Adams, S. A., & Riggs, S. (2008). An exploratory study of vicarious trauma among therapist trainees.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2(1), 26-34.
- Baird, K., & Kracen, A. C. (2006). Vicarious traumatization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 research synthesi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9(2), 181-188.
- Baird, S., & Jenkins, S. R. (2003). Vicarious traumatiza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in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agency volunteer and paid staff. *Violence and Victims*, 18(1), 71-86.
- Bride, B. E., Robinson, M. M., Yegidis, B., & Figley, C. R.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4(1), 27-35.
- Canfield, J. (2005). Secondary traumatization, burnout,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Review of the literature as it relates to therapists who treat trauma.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75(2), 81-101.
- Cohen, K., & Collens, P. (2013). The impact of trauma work on trauma workers: A meta-synthesis on vicarious trauma and vicarious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6), 570-580.
- Comrey, A. L., & Lee, H. B. (1992).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unningham, M. (2003). Impact of trauma work on social work clinicians: Empirical findings.

- Social Work*, 48(4), 451-459.
- Diener, E., Emmon,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lwood, L. S., Mott, J., Lohr, J. M., & Galvski, T. E. (2011). Secondary trauma symptoms in clinicians: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ruct, specify, and implications for trauma-focused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 25-36
- Fridman, S., & Gelso, C. J. (2000).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221-1235.
- Gottfried, V. M. (2010). *Indirect trauma syndrome: Empirical validation of a model that synthesizes secondary and vicarious traum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uisville, Kentucky.
- Herman, J. (2007). 트라우마가정폭력에서 정치 적 테러까지.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최현정 역). 서울: 플래 닷. (원전은 1997년 출판).
- Hernandez, P., Gangsei, D., & Engstrom, D. (2007). Vicarious resilience: A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a description of new concept. *Family Process*, 46, 229-241.
- Hurley, A. E., Scandura, T. A., Schriesheim, C. A., Brannick, M. T., Seers, A., Vandenberg, R. J., & Williams, L. J. (1997).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Guidelines, issues, and alternativ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8(6), 667-683.
- Hu, L. T., & Bentler, P. M. (1995).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76-99). Newbury Park, CA: Sage.
- Jenkins, S. R., & Baird, S. (2002).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vicarious trauma: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5), 423-432.
- Lee, S. M., Baker, C. R., Cho, S. H., Heckathorn, D. E., Holland, M. W., & Newgent, R. A.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s of the counselor burnout inventor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0(3), 142-154.
- McCann, I. L., & Pearlman, L. A. (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 131-149.
- Pearlman, L. A. (2003). *The trauma and attachment belief scale manual*.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Pearlman, L. A., & Mac Ian, P. S. (1995). Vicarious traumatization: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trauma work on trauma 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6), 558-565.
- Pearlman, L. A., & Saakvitne, K. W. (1995). *Trauma and the therapist: Countertransference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in psychotherapy with incest survivors*. London: W. W. Norton.
- Sabin-Farrell, R., & Turpin, G. (2003). Vicarious traumatization: Implications for the mental health of health workers. *Clinical Psychology*, 23, 449-480.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hompson, B (2010).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rippany, R. L., White Kress, V. E., & Wilcoxon, S. A. (2004). Preventing vicarious trauma: What counselors should know then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1), 31-37.
- Trochim, W. (1989). An introduction of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Van de Water, R. C. (1996). *Vicarious traumatization of therapists: The impact for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Weiss, D. S., & Marmar, C. R. (1997).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n J. P. Wilson & T. M. Keane (Eds.).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pp. 399-411). New York: Guilford Press.
- Yu, K. (2007). *A Cross-cultural validation study on counselor burnout: A Korean samp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 1차원고접수 : 2016. 10. 12.
심사통과접수 : 2016. 12. 24.
최종원고접수 : 2016. 12. 2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Vicarious Trauma Scale for Trauma Counselors

Nam, Hee Kyung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vicarious trauma scale(VTS).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preliminary items of the VTS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view data from trauma counselors and reviewing of existing literature. The experts-contents-validity was confirmed and the final preliminary scale was develope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a reasonable fit index for this six factor structure of the vicarious trauma scale. The results from a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indicat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vicarious trauma scale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 Trauma and Attachment Belief Scale, Counselor Burnout Inventory, and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A predictive validity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cale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relationships between this scale and work experience variable was analyzed. The result indicated that expert group in comparison with novice group experiences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positive effect'.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vicarious trauma, trauma counselors, vicarious trauma scale